



## '66年度 第5回 特殊圖書館大會

### 特殊圖書館大會 會議錄

日 時：1966年 5月 3日

場 所：空軍大學 CSC 講堂

參加人員：98名

司會者：金允泰(空軍中央圖書館 司書課長)

#### ■ 開會宣言

司 會：定刻에 開會치 못하고 多少 遲延된 점을 準備委員의 한사람으로서 謝過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66年度 第5回 全國 特殊圖書館大會를 開催하겠습니다.

大會長式辭 (李弘植)

祝 辭 (空軍大學總長 准將 王滿鎬) 要旨 別參 行政部長 大領 崔三然 代讀

祝 辭 (美8軍 圖書館參謀 Miss O'Halloran)  
通譯：美8軍 圖書館 李明喜

記念 講演 (延世大學校 教授 洪以燮)  
“韓國의 實學”

#### ■ 議長選出

司 會：어떠한 方法으로 議長을 選出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成宅慶(國會圖書館)：時間이 많이 經過하였으니 方法을 論하지 말고 推薦해서 決定하기로 합니다. 저는 韓國研究院의 朴啓弘氏를 推薦합니다.

司 會：異議없습니까?

——滿場一致로 朴啓弘氏 議長으로 選出되다——

#### ■ 議題發表

· 司空 哲 (KORSTIC)

Uniterm System에 關한 研究

· 李鍾禧(交通公務員訓練院 圖書館)

特殊圖書館의 諸問題

· 姜鼎求(國會圖書館)

特殊圖書館의 參考業務

[問] 列車內의 移動文庫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朴啓弘, 韓國研究院圖書館)

[答] 冊의 紛失이 많아 繼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鍾禧)

[問] 交通圖書館運營에 關한 長期計劃(藏書確保를 中心으로)은 樹立되어 있습니까?(金允泰, 空軍中央圖書館)

[答] 獨立이 되어 있지 않고 訓練院長 밑에 所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隘路事項이 많아 長期計劃을 세

을 수가 없습니다. (李鍾禧, 交通公務員教育院圖書館)

■ 全體會議

[問] 政府關係圖書館의 統合問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재영, 農村振興廳圖書館)

[答] 전에 內閣事務處에서 論議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都市計劃面이나 行政의인 面으로 볼때 隘路가 많아 實現되기 어렵습니다. (議長)

[問] 圖書館의 館種別 等級이 미리 定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바꿀수도 있는 것인지요? (申瑢俊, 濟州道教育研究所)

[答] 圖書館協會에 加入할때 各 圖書館이 希望되는 等級을 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程度 伸縮性이 있는

것입니다. (張仁植, 圖協事務局長)

■ 決議事項 및 建議事項

1. 圖書館從事者의 待遇改善을 爲한 對關係要路活動 展開(各區出身 國會議員 및 關係要人에 對한 Pen Pal 其他 請願運動實施)

2. 特殊圖書館部會에 對한 豫算策定(主로會議費)을 圖書館協會에 建議.

■ 閉會宣言

議長: 以上으로 66年度 第5回 全國 特殊圖書館大會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34面에서 繼續)

그러나 建築 當時 設計者의 미스로 閱覽室의 出入門이 window 式으로 돼 있었다면 即時 밀고 닫는 door로 門을 고쳐서 閱覽空氣를 害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境遇, 門을 고치기는 커녕 設立된지 5·6年이 지나도록 그대로 放置해 놓고 使用하면서도 <圖書館의 奉仕는 이렇고 저렇고 ……>云云한다면 果然 그 圖書館 奉仕의 意義는 어디서 찾아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閱覽者가 門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에 出入門쪽을 1分間에도 10餘회씩 쳐다보게 되는 數 많은 利用者들의 安定感같은 것은 아랑곳 없이 말이다.

■ 運營의 妙

오늘날 現代國家의 機能이 量的으로 擴大되고 質的으로 專門化 되어감에 따라 圖書館의 業務도 完全히 專門化되었고 그 內容도 圖書館史上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이와 같은 圖書館의 多樣한 業務와 奉仕內容을 合理的으로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充分한 豫算·綿密한 計劃·有能한 職員의 積極的인 活動姿勢가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圖書館의 發展을 敢히云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運營者는 적어도 充分한 豫算을 確保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로서 圖書館問題에 精通하고 圖書館의 아이디어·멘으로서 나아가서는 守衛·給仕·分類編目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運營者가 要請된다고 본다.

그것은 地方에 散在하여 있는 舉皆의 公共圖書館의 職員은 5名 內外라 해서 틀린 推算이 아니거늘, 누가 參考奉仕를 하고 누가 5원 미만의 料은 入館料를 받고 앉아 있어야 하고 資料를 整理해야 하고 清掃을 할 職員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管理者의 手腕에 따라 豫算을 보다 많이 確保하느냐 그리고 그와같이 적은 豫算을 가지고도 市民奉仕를 展開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모두 決定된다고 본다.

그래서 筆者는 적어도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管理者라면 一生一代를 圖書館界에 불사르겠다는 確固한 信念만이 圖書館運動(社會教育)을 成功的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본다.

世界에 손꼽히는 屈指의 圖書館들도 따지고 보면 오늘의 成長을 이룩하기 까지에는 갖가지 難關을 파헤치고 現時點에 이른 것이다.

職員의 끊임없는 研究와 教育에서 오는 積極的인 奉仕만이 社會에 度外 視되고 있는 韓國의 公共圖書館을 建設해 나가는 道를 알고 公共圖書館人은 社會發展에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加速하는 現代史에 恒常 遲刻을 免치 못할 것이다.

要는 地域社會에 圖書館을 끌고루 심고 圖書館奉仕를 깊고 넓게 퍼기 爲해서 말이다.

實로 關心이 많은 이 主題를 本人이 맡아서 그 問題點을 充分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罪悚하게 생각합니다.

(尾)